

광주FC, 가브리엘 최선봉 코리아컵 8강행 정조준

오늘 수원종합운동장 수원FC 격돌 전복전 아쉬운 패배 딛고 승리 겨냥 뽀뽀한 리그 일정에 로테이션 가동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일정을 마치자마자 뽀뽀한 K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광주FC가 이번엔 코리아컵 원정에 나선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4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는 우승이 목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로 최상위리그 K리그1 소속인 광주는 3라운드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광주는 3라운드에서 경주한수원에 2-0 완승

을 거두며 저력을 보여줬다. 당시 가브리엘과 박인혁의 연속골에 힘입어 승기를 잡았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이번 수원FC전에서도 가용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리그와 컵대회를 병행하겠다는 각오다. 시즌 초부터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한 결과, 어떤 선수가 출전하더라도 광주의 축구 철학과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상태다. 노희동, 진시우, 권성운, 홍용준, 안혁주 등 젊고 유망한 자원들은 이미 지난 라운드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증명했다.

광주의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경주한수원전에서 1골 1도움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전복전에서도 후반 31분 교체 투입 후 인상적인 돌파와 움직임 보여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체력 안배가 이뤄진 만큼 수원FC전에서도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경기인 지난 11일 전북 현대전에서 후반에만 슈팅 10개를 쏟아내며 압도했는데도 골망

을 흔들지 못해 아쉬운 안방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광주는 수원FC와 16강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노린다. 수원FC도 리그 최하위(2승 5무 6패·승점 11)로 분위기 반동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코리아컵을 마치면 곧바로 주말인 18일 포항과 리그 경기를 치른다. 지난 주말부터 3경기를 약 3일 간격으로 치르는 뽀뽀한 일정으로 코리아컵 16강에서 선수단 체력 안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주목된다.

한편, 1996년 'FA컵'으로 창설된 코리아컵은 지난해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올해 대회엔 K리그1 12팀, K리그2 14팀, K3리그 14팀, K4리그 10팀, K5리그 8팀까지 총 58개 팀이 참가했다. K리그1부터 K4리그까지는 모든 팀이 자동 출전하며, 아마추어인 K5리그에선 지난해 상위 8개 팀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

코리아컵 우승팀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대항전 출전권이 주어진다. 조혜원 기자



광주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날 가브리엘을 앞세워 8강에 도전한다. 광주FC 제공

손현호, 아시아역도선수권 남자 81kg급 용상 '금'

손현호(국군체육부대)가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손현호는 지난 12일 중국 장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인상 157kg, 용상 200kg, 합계 357kg을 기록했다.

합계 기록으로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아시아역도선수권은 인상, 용상, 합계에 모두 메달이 주어진다.

손현호는 인상에서 중국 뤼충양(162kg), 인도네시아 리즈키 주니안시아(161kg)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용상에서는 뤼충양과 같은 200kg을 기록했지만 1차 시도에서 성공해 우선순위에 따라 금메달을 획득했다. 손현호는 용상 2, 3차 시기에 206kg을 시도해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바



손현호가 지난 12일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아시아역도연맹 인스타그램

벨을 놓쳐 아쉬움을 남겼다. 합계는 뤼충양(362kg), 리즈키 주니안시아(358kg)에 이어 3위가 됐다.

송정중과 정광고를 거쳐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손현호는 지난해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에서 197kg으로 동메달을 수상했으며 최근 제84회 문목서상전매 역도경기대회에서 용상 205kg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손현호는 "용상 금메달과 함께 동메달 2개를 더해 기쁘지만 인상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인상 기록을 보완해 올해 세계선수권, 내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8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손현호는 7월 군 복무를 마치고 광주시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전남족구협회, 전국대회 3개 부문 석권 '종합 준우승'

일반부·여성부·장애인부 정상

전남족구협회가 지난 10~11일 전북 김제시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 대항 전국족구대회에서 일반부, 여성부, 장애인부 우승을 차지하며 종합 준우승을 기록했다.

전남족구협회는 지난해 제28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 종합 준우승, 지난 4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 1위(은·동 2개)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거둬 전국 최강 실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57개 팀 1,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일반부, 체전부 등 총 1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일반부에서는 순천 OK팀이 42개 팀이 경쟁한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 충주한우리팀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9개 팀이 출전한 여자 일반부에서는 여수 크리쉬팀이 결승에서 광주 동구체육회팀을 2-1로



순천 OK팀이 최근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 대항 전국족구대회 일반부 결승에서 충주한우리팀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전남체육회 제공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장애인부에서도 전라남도체육회팀이 풀리드 2전 전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장유신 전남족구협회 회장은 "전남 소속 팀

들이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 족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광주도시공사 서아루, 핸드볼 국가대표 훈련 합류

광주도시공사 서아루(레프트윙)가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에 합류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3일 "이번 훈련에는 조영신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 18명, 이계정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 20명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서아루는 여자대표팀에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중 유일하게 발탁돼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했다.



서아루

여자 대표팀은 20일부터 2주간 헝가리로 전지 훈련을 떠난다. 헝가리에서는 슬로베니아 대표팀과 현지 클럽팀들을 상대로 연습 경기를 벌이며 11월 세계선수권을 대비한다.

이계정 여자 대표팀 감독은 "소집 훈련 기간에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단단한 워밍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대표팀은 9월까지 진행된 선수촌에서 아시아 정상 탈환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간다.

고교생 홍의석(선산고)이 발탁됐고, 2024-2025시즌 H리그 신인왕 김태관(충남도청) 등 젊은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조영신 남자 대표팀 감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선수들을 점검하며 육성 가리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퍼, 새 아시아쿼터 선수 시마무라 영입

페퍼저축은행이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영입한 스테파니 와일러(29·호주)를 포기하고 일본 대표팀 출신 베테랑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33)를 대체 선수로 영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3일 "와일러가 최근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 부위에 대한 재수술 진단을 받았다"며 "선수 본인도 구단 모두 오랜 고민 끝에 교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와일러는 지난 시즌 GS칼텍스 소속으로 활약했지만 지난해 11월 10경기 만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 수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드래프트 1순위로 다시 페퍼저축은행의 선택을 받았지만 재수술이 불가피해지면서 합류가 무산됐다.

새로 영입된 시마무라는 신장 182cm의 미들블로커로 NEC 레드 로케츠 소속이자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다. 2016 리우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으로, 일본 V리그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



페퍼저축은행 새 아시아쿼터 선수 시마무라 하루요. 페퍼저축은행 제공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시마무라는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라며 "중요에서 블로킹, 공격 등 다양한 플레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마무라는 "(친정 팀인 일본 V리그) NEC 레드 로케츠와 자매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하게 돼 뜻깊다"라며 "팀 승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